

질문

교실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교과지도와 생활지도에 대한 자신감을 갖도록 방법을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답변

느리울중학교 이상돈 컨설턴트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이들과 소통하고 싶다는 선생님의 바람이 절실하군요. 수업진행에 어려움이 많으리라 봅니다. 힘드신 만큼 문제해결을 위한 선생님의 의지 또한 매우 강하시어 해결책을 찾으시기 어렵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내내 건강하세요!

선생님의 교과목은 알 수 없으나 질문 의도는 알 수 있습니다.

부디 올리는 말씀이 도움이 되어 더욱 편안해지시길 바랍니다.



분석

1. 우선 자신감과 두려움이 공존하는 시기라고 봅니다.
2. 학생중심 수업방법에 대한 인식이 있으나 시행착오의 두려움이 있음
3. 학생의 관심사와 발달 심리에 대한 연구 부족

4. 교사의 강의식 수업분석과 학생 래포형성 필요

5. 창의·인성교육에 대한 인식 필요 등

해결방법

1. 나만의 관계형성 프로그램을 통하여 자신감을 극대화하고 학생과 공유할 수 있는 역량을 준비하세요. 교사는 무장해야 합니다. 경우의 수가 많을수록 여유를 가질 수 있지요. “나” 자신의 가치역량을 충분히 끌어 올린 후 “너” 학생에 대한 관계가치를 실현함으로써 풍부하고 확고한 소통의 공감대를 만들 수 있습니다.

2. 창의·인성 교육 안에는 창의성 신장과 학습기법 적용만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생님의 고민처럼 인성을 중심으로 한 창의성, 결과 보다는 과정 중심, 나 보다는 우리와 함께, 서열과 순위 보다는 잠재력과 적성, 문제발견, 문제해결 등의 정의적 목표의지가 바탕에 있고 그 적용을 위한 사고기법 등이 활용되어 학생의 가치역량을 성장 시켜 주기위한 전략이 깔려있습니다. 창의·인성 교육의 개념과 실천 방법에 대한 연구도 하시고 풍요로운 수업을 위한 연구서적도 탐독하시어 두려움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3. 교사는 다양한 경험과 그 피드백을 통해 자신만의 수업브랜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의도적인 활동이 필요하지요. 나의 부족분을 채우고 재충전 할 수 있는 자기연찬의 시간을 가지시고 동료교사와 충분한 소통의 시간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컨설팅의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의사와 약국을 찾아 가듯이 교육현안을 교육컨설턴트와 함께 나누어 보시길 권합니다.